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7>

다시 무엇을 싫어 하는가?

<조주록>은 초반부 조주 스님과 남전 스님과의 선문답을 제외하면 대체적으로 평이하고 짧은 비유로 구성돼 있다. 그렇다고 <조주록> 전체가 쉬운 비유로만 구성된 것은 결코 아니다. <조주록> 속에는 간혹 중진 남자에게도 난해한 공안들이 나온다. 이런 것은 당연히 화두로 분류될 수 있다. 그러나 <조주록>은 공안의 성격을 띤 화두가 많은 선서가 아니고, 남자가 조금만 명상에 들어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곧 알아낼 수 있는 은유나 비유적인 대답이 많다. <조주록>은 선을 알리는 사람들에 어떤 영감을 던져주는 선서인 것이다.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도 평범한 대담 속에 불법의 큰 뜻을 함축하고 있다.

한 스님이 물었다.
“법(法)은 특별한 법이 따로 있지 않다”라고 말하는데 도대체 법이란 무엇입니까?
조주 스님이 답했다.
“밖도 공하고 안도 공하며, 안팎이 모두 공하다.”

問 法無別法 如何是法 師云 外空內空內外空

법은 불변의 진리를 말한다. 요즘은 ‘진리’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예전에는 ‘법’이라는 말로 진리를 대변했다. 불변의 진리는 무엇일까? 이것도 남자들에게는 하나의 화두가 될 수 있다. 진리를 묻는 질문에 조주 스님은 “밖도 공하고 안도 공하며, 안팎이 모두 공하다”라고 간단히 답변했다.

여기서 안은 사람의 지식이나 마음을, 밖은 외부의 모든 현상을 뜻한다. 내외가 공하다는 것은 일체가 공하다는 뜻이고, 그것은 또한 ‘법(法)은 공(空)’이라는 뜻이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삼라만상이 ‘공(空)’이라는 한 글자로 대변할 수 있다. 동서양의 현자들이 생각했던 철학의 이상과 모든 성인이 보았던 궁극의 한 자는 결국 공(空)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너절너절 설명하지 않아도 곧 알 일이다.

한 스님이 물었다.
“부처님의 참다운 법신(法身)이란 무엇입니까?”
조주 스님이 답했다.
“다시 무엇을 싫어하는가?”

問 如何是佛眞法身 師云 更嫌什麼

법신은 부처님의 몸을 세가지로 표현한 것 중에 하나인 ‘진리의 몸’을 말한다. 의미상으로는 ‘불변의 몸’ ‘진정한 부처’라는 말이다. 독자에게는 ‘진

정한 부처’라는 말이 더 실감이 갈 것이다. 질문을 다시 요약하면 “진정한 부처는 무엇입니까?”라는 의미가 된다. 그런데 조주 스님은 “다시 무엇을 싫어하는가?”라고 반문하는 것으로 특대답하고 말았다. 부처를 묻는데 싫어하다니, 도대체 이 무슨 뜬 구름 같은 소리인가? 공안 같지만 이것은 공안이 아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곧 풀이될 답변이다.

이와 관련한 해답은 이미 <조주록> 선해 첫 회에 강조한 것이 있다. 그것은 육조 스님도 강조한 것이고, 입제 스님도 강조했던 바로 모든 선사가 이구동성으로 말한 것이다. 그것이 무엇일까? 힌트를 내놓는다면 “부처는 싫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으로 조주 스님이 위에서 말한 뜻을 정확히 풀어낸다면 선사상의 중심축을 얻은 것이다. 자기도 모르게 회일이 올 수도 있다.

한 스님이 물었다.
“무엇이 손님(賓) 중에 주인입니까?”
조주 스님이 답했다.
“나는 각시 얻는 일 따위에는 관심 없어.”
한 스님이 다시 물었다.

주어진 일에 충실하면 보물은 한낱 돌덩이다

일체법이 존재한다면 반드시 멀하는게 법칙

“무엇이 주인 중에 손님입니까?”
조주 스님이 답했다.
“나는 장인이 없어.”

問 如何是賓中主 師云 山僧不問婦 問 如何是主中賓 師云 老僧無丈人

방장이 주인이라면 객승은 손님이다. 그런데 두 사람이 대담하다 보면 객이 주가 되고 방장은 빈이 되는 수가 있다. 이러한 빈주(賓主)에 대한 법문은 당시 유행하던 하나의 화제거리였다. 그 빈주 법문을 갖고 어떤 사람이 조주 스님에게 물으니 조주 스님은 독특한 선기로 대답했다.

신랑은 각시를 받아들이는 쪽이다. 신랑을 주인으로 보면 각시는 손님이다. 그런데 손님 중에 나 이 많은 어른이 있으면 당연히 그는 손님 중에 주가 되므로 모두 나아가 인사를 한다.

이러한 역할 구도에서 조주 스님은 빈주 법문을 간단하게 일축했다. 즉, 조주 스님은 각시를 얻는 것에도 관심이 없고, 장인도 없다 했으니 빈주에 대해 도무지 아무 할 말이 없다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공연히 주이니, 빈이니 하면서 누가 주도권을 잡는가에 관심을 갖는 것이지, 스님은 그런 것에 무관심한 지 이미 오래라는 말이다. 세상에 관심 없이 오로지 주어진 일에만 충실 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서 중요한 보물은 한낱 돌덩이와 다름없이 되고 만다. 가치라는 것도 사람들이 매긴 가치이지 본래부터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한 스님이 물었다.
“일체 법이 항상 머물러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조주 스님이 답했다.
“나는 조상도 꺼리지 않네.”
그 스님이 다시 한 번 물었더니, 조주 스님이 답하기를
“오늘은 그 말에 대답하지 않겠어.”

問 如何是一切法常主 師云 老僧不諱祖 其偈再問 師云 今日不答話

일체법이 상주한다는 것은 부처님 법은 영원불멸해 언제까지나 이 땅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부처님 법은 신을 믿으라고 설파하는 종교도 아니고 이치에 어긋나는 것을 진리라고 설파한 적도 없다. 항상 진리에 부합하고, 다양한 심리를 표현한 것으로 누가 들어도 객관적 진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진리는 만고불변의 진리로서 오래오래 인류의 위대한 보물로 남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불교는 ‘일체법은 상주한다’고 강조한다.

그런데 지금 조주 스님은 그런 사상에 반대했다. “세상에 부서지지 않고 존재하는 것은 없다. 일체법이 존재한다면 반드시 멀하는 것이 법칙이다. 어찌 불법이 상주하겠는가?”라는 생각을 표현한 것이다.

조상은 누구나 존중한다. 그것은 불변의 진리다. 선법(禪法)은 부처님·조사를 모두 넘어서는 것을 최고로 친다. 일종의 청출어람(靑出於藍)이다. 제자가 천하에 우뚝 서지 않으면 스승으로부터 인정 받지 못한다. 그것이 선가의 법이다. <조주록> 전 반부에서도 조주 스님은 스승을 밟아버리거나, 인정하지 않았던 대목이 나왔다. 이러한 전통 선가의 사상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 바로 “나는 조상도 꺼리지 않아”라는 말이다. 즉, “무슨 상주(常主)운운 하는가, 나는 스승을 넘었고, 나도 언젠가 내 제자에게 당할 것이야. 영원한 것은 없어. 그것이 법이야”라는 의미인 것이다.

■ 무불선원 선원장

덕산 스님의 달마록 선해 달마관심론 12

안팎이 청정하니 곧 가람이라

#법유를 밝히다
여래는 금강과 같이 부서지지 않으며 번뇌가 없는 진실한 몸이다. 세간의 괴로움을 영원히 여의었는데 어찌 이같이 깨끗하지 못한 우유가 필요하겠으며, 이것으로 어찌 배고픔과 목마름을 면하겠는가. 경에서 실한 것처럼 이 소는 높은 곳에도 낮은 습지에도 있지 않다.
좁쌀·보리·겨·밀기울을 먹는 것도 아니다. 무리와 같이 앉은 특별한 소로 그 몸은 자색을 띤 황금색이다. 이 소는 다름이 아니라 광명을 두루 비추시는 부처님을 뜻한다.
부처님은 대자대비로 일체를 가엾게 여기시어 청정한 법의 육체에서 삼취정계와 육바라밀의 미묘한 것을 낸다. 그리하여 해탈을 구하는 모든 이를 먹여 기르시니 여래만이 마셔서 도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이 마시기만 하면 모두 위 없이 바르고 참된 도를 얻는 것이니라.”

[원문]
如來者 自是金剛不壞無漏法身 永離世間諸苦 豈須如是不淨之乳 以飢飢渴也 如經所說 此牛不在高原 不在下濕 不食粟麥糠 不與特牛同群 其牛身作紫摩金色 言此牛者 則鹿盧遮那佛也。
以大慈悲憐憫一切故 於清淨法體中 流出如是三聚淨戒 六波羅密 微妙法乳 乳養一切求解脫者
欲如是清淨之牛 清淨之乳 非獨如來飲之成道 一切衆生。

[해설]
부처님과 여래는 같은 말 동성 스님 작입니다. 부처님은 마음으로 된 부처님이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위대한 덕을 갖춘 본래 진여담체의 부처님은 어떤 이름도 붙일 수가 없어요. 다만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여래, 부처님, 선, 진공, 진여 등 온갖 명사를 붙여 놓았을 뿐입니다. 마음은 물질이 아니니 깰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금강과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마음은 영원한 괴로움에서 벗어난 자리며 진실한 몸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육욕으로 만들어진 우유로써 어찌 윤회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부처님은 우리의 본래 마음이 자색을 띤 황금색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광명의 빛이라는 말입니다.
또, 부처님만 도를 이루 해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일체중생을 한 몸으로 보고 제도하기 위해 삼취정계와 육바라밀을 설했습니다. 그리하여 누구든지 이를 행하게 되면 참된 도를 깨달아서 부처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을 바르게 지어라
또 여쭙기를, “경전을 보면 성전을 짓거나 부처님의 형상을 만들거나 향을 사르거나 꽃을 흘거나 장명등(장명등)으로 밝히는 등불을 켜거나 밤낮 여섯 차례 예불을 하거나 재계를 지키는 등 온갖 공덕을 닦으면 모두 불도를 이룬다 했다. 이는 오로지 마음을 관하는 한 가지 법이 모든 수행을 다하는 것과 같다고 하신 말씀으로 반드시 허망한 말씀일 것입니다”하니 대답을 하겠다.
“중생들은 우둔하여 지혜가 좁고 옹졸하며 깊고도 깊은 묘한 이치를 깨닫지 못한다. 수도 없는 방편으로 중생들을 인도하려고 유위의 일을 빌려 무위의 이치를 나타내신 것인데 대가가 어찌 알 수 있겠느냐? 안으로 수행하지 않고 밖으로만 구하며 복을 바라는 것은 옳지 못한 것이니라. 가람은 법어인데 이 말은 청정한 곳이라는 뜻이니라. 삼독을 영원히 없애어 육근을 항상 깨끗이 하며 몸과 마음을 편안히 하여 안과 밖이 청정하면 이것이 곧 가람을 짓는 것이니라.”



[원문]
又問曰 佛說經中 令衆生修造伽藍 鑄寫形像 燒香散花 燃長明燈 日夜六時行道 持齋禮拜 種種功德 皆成佛道 若唯觀心 總攝諸行 說如是事 應虛妄也。
答曰 佛所說經 有無量方便 以一切衆生 鈍根狹劣 不悟甚深之義 所以假有爲事 喻無爲理 若復不修內行 唯只外求 希冀獲福 無有是處 言伽藍者 梵音 此言清淨處也 若永除三毒 常淨六根 身心湛然 內外清淨 是則伽藍也。

[해설]
달마 스님은 오로지 우주를 하나로 관하는 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참 뜻과 하나가 되고 그것이 불도를 이룰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불자님 중에는 절에 오고 싶어도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찾지 못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생활이 어렵더라도 항상 마음을 너그럽게 쓰고 덕을 많이 쌓으십시오.
마음이 부처입니다. 마음을 닦고 찾는 공부를 해치지 밖으로 복을 바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복을 짓는 일도 불교를 바로 알고 참 뜻을 행하면 작은 것이라도 큰 복을 지을 수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인연도 과거 전생의 업력으로 인한 것이지만 결국은 텅 빈 존재입니다. 자식도 바로 우주와 하나입니다. 우주를 생각하고 자식을 키우는 것은 우주를 상대로 복을 짓는 일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두말 할 나위가 없습니다.
어느 곳에든서든 열심히 정진한다면 가정이 곧 가람이 됩니다.

■ 청주 혜은사 주지

황금털사자의 미미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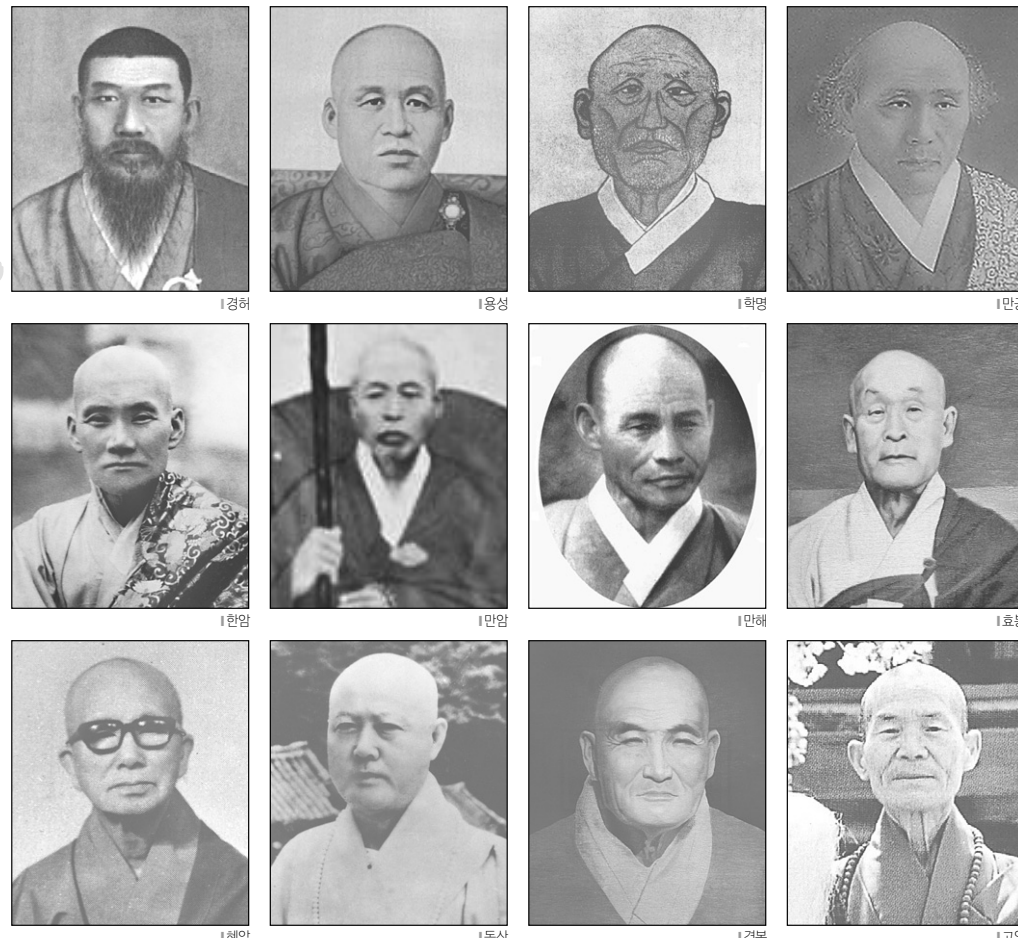
한국 근현대 선사들의 眞面目을 선시로 읽다.



선의 중흥조 경허 스님에서 고암 스님까지 12명 걸승들의 살림살이가 녹아든 선시의 ‘완전 이해’

<황금털사자의 미미소>는 한국 현대 문단에 선시의 이론을 세운 독보적 존재 송준영 시인이 12명 선사들의 삶과 수행의 핵심을 소개한 노작입니다.

[송준영 지음 / 여시아문 펴냄 / 575쪽 / 25,000원]



구입문의: 현대불교 헌불삼 02)2004-8215~6

입금계좌: 농협 053-01-269062 | 국민 343601-04-046766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